

# “기본으로 돌아가 방역상황 점검”

### 송하진 도지사, 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 열고 특별방역 만전 등 당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병철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30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에 이어, 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관내 교회와 성당 등의 부활절 종교행사와 관련해 방역 협조 등 긴밀한 소통 관계를 강화해 달라”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에도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방역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고,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자”며 “거리두기 기본수칙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게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업주가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민들에게도 방역 동참을 적극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송 지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을방송, 회사 등 사업장에서 단체, 장거리 여행 자제를 전파하고, 유원지 등에서 방역대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며 “방역수칙 준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고,

방역관리자 지정제도 시장, 군수가 직접 교부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자”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최근 전주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예방접종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송하진 도지사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에 대해서도, 실외활동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전파와 불필요한 차량 운행 제한 및 불필요한 약속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공중·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 집중 점검

### 미준수 업소 적발 시 무관용원칙 강력 대응

전북도가 전국적 확산이 두드러지는 목욕장업의 특별방역대책 및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연장(3.29.~4.11)하고, 방역지침 미준수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무관용원칙 대응에 나선다.

도는 지난 23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6명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교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최근 전주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집단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지난 일주일간 위생업소

1만8,84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57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식당,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 57개소 및 목욕장,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실, 식당, 카페 등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용자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목욕장 공용물품 사용금지, 숙박업 정원초과 수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이었다.

/유호상 기자

# 최훈 행정부지사, 대기배출 사업장 현장 방문

### 휴비스 전주공장 찾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현장 확인·지속 노력 당부 전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사항·대응 방안 논의·분야별 저감조치 추진

전북도가 최훈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30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영상회의에서 환경부 및 6개 시·도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조치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진했다.

주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5만739대에 대해 운행제한 실시와 함께, 대규모 배출사업장 27개소와 건설공사장 1,231개소에 대한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집중관리도로 31개소 139.1km에 대해 도로청소차 55대를 활용, 도로 청소 실시와 함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 4회에 걸쳐 소방차 37대와 79명을 추가로 투입, 도내 35개 주요 도로에 불법사 실시를 병행해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촌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전파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최훈 행정부지사는 대기배출 사업장 중 (주)휴비스 전주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대한 설명과



최훈 행정부지사는 대기배출 사업장 중 (주)휴비스 전주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함께,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고성욱 (주)휴비스 전주공장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환산열, 질산염 등을 저감시키는 요소수 사용량을 늘려 오염물질을 29%가량 저감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TMS설치 사업장에서는 가동시간 단축, 가동을 조정, 약품투입 등 사업장

자체 설정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

TMS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실시간 전송해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대기배출 사업장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약품 투입량 증가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최선을 다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어선 안전교육 비대면 추진

### 4월 1일 선박 유형별 안전·비상조치 등 실무형 안전교육 중점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어선 및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어선 및 낚시어선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1년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교육을 오는 4월 1일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낚시어선은 270척(군산 207, 부안 63)으로, 주된 해상사고 원인은 정비불량(55%), 운항 부주의(30%)로 전

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해양사고 9,413건 중 어선사고가 6,508건으로, 해양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의식 향상이 시급할 실정이다.

교육대상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희망하는 어선 및 낚시어선 종사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어업 현장을 방문해 어플리케이션 설치와 교육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설명을 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수산업법 및 낚시관리 육성법, ▲선박 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통신장비 및 항해장비 사용 실무 등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형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올해 내실있는 집합교육을 준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방식을 선회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안전의식이 향상돼 더 이상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가을 파종 목초·사료작물 종자공급 신청하세요”

전북도가 가을에 파종할 목초 및 사료작물의 종자공급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는다.

종자 신청은 사료작물 재배·이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재배할 초종별로 관할 농·축·낙협에 4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료작물 종자는 올해 가을에 파종하는 종자로 ▲목초 종자인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켄터기블루그라

스, 티모시 ▲사료작물 종자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호밀, 청보리 등이다.

사료작물 종자 신청시에는 본인의 작부체계, 토질, 수확기 등을 감안, 재배조건에 적합한 초종을 선택해야 하며, 원활한 물량확보 및 공급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가을파종 사료작물 종자 공급시기는

8~10월경이며, 눈에 파종시 입모종 파종 또는 벼 수확후 시비 및 경운을 완료하고 파종 적기가 되면 즉시 파종해야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김선구 도 친환경축산팀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으로 조사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을파종 사료작물 종자신청에 경중·축산농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